

#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서울형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

마이스터고 강점 특성화고 접목  
첨단 분야 고속런 실무인재 양성  
조희연 교육감 "직업교육 체제 혁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첨단 분야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고속런 실무인재를 양성하고자 특성화고에 '서울형 마이스터고'를 도입한다.

'서울형 마이스터고'란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 역량을 가진 마이스터고의 강점을 특성화고에 접목해 더 높은 직업교육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특히 마이스터고 수준의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프로젝트 수업 및 디지털 기반 교육 ▲산·학·관 협력 체제 등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해 학생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4년도까지 선도학교 20개교를 시범운영하고, 내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서울형 마이스터고
학교유형	특수목적고(산업수요 맞춤형고)	특성화고
학교수	4교	64교(예정)
관리감독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li> <li>프로젝트 수업</li> <li>디지털기반 교육</li> <li>산·학·관 협력체제</li> <li>영마이스터인증제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li> <li>프로젝트 수업</li> <li>디지털기반 교육</li> <li>산·학·관 협력체제</li> <li>영마이스터인증제 운영</li> </ul>
학생진로	취업 고속런 실무인재 양성	취업 고속런 실무인재 양성 진학 전공분야 계속 교육
운영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년마다 지정·운영 평가</li> <li>연차별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년마다 지정·운영 평가</li> <li>연차별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li> </ul>
행·재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이스터고 운영비 지원으로 학교특색사업 자율운영</li> <li>목적사업 제한적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비 지원으로 학교특색사업 자율운영</li> <li>목적사업 정비로 학교 업무경감</li> </ul>

지정·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2025년 64개 특성화고를 서울형 마이스터고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서울형 마이스터고' 선도학교 간 정기적 협의체 운영, 컨설팅 지원단 운영 등을 지원한다.

서울 직업계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계획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반도체 거점학교'도 운영된다. 관련 학과들을 개편해 거점학교 중심의 학교 간 공동교

육과정을 진행한다.

2023학년도에 우선적으로 2개교를 지정 운영하며, 2025학년도 까지 매년 2개교씩 총 6개교를 선정한다. 거점학교에는 운영비, 산업수요 맞춤형 학교 개편, 반도체 분야 학교 밖 교육기관 발굴, 산업계·교육계 전문가 인력풀 구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밖에 반도체 마이스터고 1개교를 설립을 추진 중이며,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한국폴리텍대 반도체 융합캠퍼스, 나노융합기술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견패키징 업체 등과 반도체 분야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해 나가고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블록체인 DID 기반 스마트 학생증 모바일 앱을 도입한다. 블록체인 DID(Decentralize Identity, 분산신원인증) 기술은 4차산업 신기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원 증명 기술이다. 학생들은 스마트 학생증 앱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신

원정보와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기존 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AI융합 진로직업교육원(가칭) 설립이 추진된다. 교육원에서는 단위학교의 진로교육과 신산업·신기술 교육 지원과 미래 첨단기술 분야 교원 현장 전문성 향상 연수를 위해 4차 산업 신기술 교육장 등을 구축하고, 초·중·고 학생 대상 진로직업교육 및 직업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은 물론 교원·학부모, 시민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급격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서울 직업교육으로의 체제 혁신을 이루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라며 "이를 통해 우리 서울 학생들을 빠르게 변화해 가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서울시, 총무로 도로공간 재편... 보행로 1.8배

이달 중 착공해 연말 완공 목표  
띠녹지 조성... 붓꽃 등 초화류 식재

비좁고 불편했던 총무로의 보행로가 1.8배 넓어진다.

서울시는 총무로역 교차로에서 종로 3가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총무로(돈화문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중 착공해 연말 완공한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보도폭 확대 ▲띠녹지 조성 ▲횡단보도 신설·개선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조업 주차공간 정비를 추진한다.

먼저 시는 기존 0.7~1.5m였던 보도폭을 2~2.8m로 넓힌다. 노후 보도 포장을 교체하고 포장재를 통일해 도시미관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또 시는 총무로 보행로에 띠녹지를



총무로 조감도. /서울시

가꾸기로 했다. 시는 국수나무, 노랑꽃창포, 붓꽃 등 다채로운 초화류를 식재해 지역 일대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총무로~돈화문로 전구간의 횡단보도를 보행동선을 고려해 정비한다. 시는 이면도로 접속부 단절구간에 횡단보도를 신설한다. 특히 신설 횡단보도 13곳 중 차량통행이 많은

6곳에는 보도와 높이가 같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이동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띠녹지 높이를 조정하고 횡단보도 턱 낮춤 등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보행이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을 보행로에 적용할 방침이다.

아크릴, 인쇄, 기계, 공구, 조명 등 상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업 주차면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노상주차장을 정비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총무로가 지역 상권과 관광지를 잇는 명품 보행거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도심 보행공간 확대를 통해 시민 편의 증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ik1@

##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 수상버스 도입 검토"

유럽출장 중 곤돌라 설치 등 입장 밝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강에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후보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템스강에 위치한 'IFS 클라우드' 케이틀라 탐승장을 방문해 "곤돌라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관광 및 교통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는 대상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한강변 주요 여가문화 거점 공간을 공중으로 연결하는 곤돌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시는 곤돌라 설치 후보지로 독섬, 잠실, 서울숲, 상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시민이 즐겨

찾는 공간이지만 교통 접근성과 연결성이 부족해 곤돌라 같은 신 교통수단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한강의 주요 거점을 잇는 교통 기능을 갖춘 곤돌라가 강변 일대를 색다르게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곤돌라 후보지에 대한 민간투자 제안을 받아 기술적 타당성, 교통·환경적 영향성, 수요 등을 검토한 뒤 최종 대상지를 선정, 한강의 새 랜드마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오후 런던 템스강을 오가는 리버버스(수상버스)를 체험한 오 시장은 한강에 수상버스 도입도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 돌아가 (수상버스 도입)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며 "1년에 몇 번 홍수가 날 때를 제외하면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인천시 창업 활성화 2537억 투입

인천광역시시는 올해 총사업비 2537억 원을 투입해 '2023년 창업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대 전략 15개 세부과제, 65개 사업을 추진한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K-바이오 랩허브를 중심으로 인천형 창업인프라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또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인천=김대의 기자

## 경기도, '건설안전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ISP 완료, 2단계 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사업장 등 산업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건설공사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안전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먼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건설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을 위한 정보화전략 계획(ISP)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건설안전관리 시스템은 도와 시군의 인허가 담당부서, 건설·안전 부서에서 추적관리가 어려운 50억 미만 소규모 공사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건설안전 실태 실시간 확인·관리 ▲안전에 관한 미흡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전달·공유 조치 ▲사고 발생·현장점검 이력 관리 등을 전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해돋이 / 06:44
해질녘 / 18:39

### 오늘의 날씨

3월 15일 (수)

음력 : 2월 24일

## 수도권 날씨

7 ~ 13°C

운중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4/11

동두천 5/12

가평 3/12

파주 5/11

서울 7/13

양평 3/15

수원 7/13

용인 7/13

백령도 5/6

인천 7/11

평택 5/1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ICC, 첫 영장 발부... '우크라 침공' 러 전범 재판 개시  
▲ 뉴욕증시 SVB 영향... 은행주 폭락 속 혼조세 마감



▲ 폭스바겐, 캐나다에 배터리 공장 설립... IRA 보조금 겨냥  
▲ 中 무기 수출 감소... "전쟁 대비 국내 비축 강화 신호"



▲ 이탈리아·영국·일본, 16일 도쿄서 국 방장관 회담  
▲ '한 달 살기 명소' 치앙마이, 사실 대기 오염 최악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